

# BIFAN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시네마 2018.07.14  
NO.3

장르가 된  
배우,

정우석

INTERVIEW <대관람차> 백재호 · 이희섭 감독, 배우 강두

FEATURE 조코 안와르 감독 마스터클래스

BIFAN



## BEYOND AUTO. BAVARIAN MOTORS.

MINI 공식 딜러 바바리안 모터스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공식 후원 합니다.  
바바리안 모터스에서 새로워진 디자인의 THE NEW MINI도 만나보시고, 자동차, 그 이상의 가치를 경험해 보세요.

[BLOG.NAVER.COM/MINIBV](http://BLOG.NAVER.COM/MINIBV)

- |                                     |                                     |   |                                     |                                      |  |
|-------------------------------------|-------------------------------------|---|-------------------------------------|--------------------------------------|--|
| <b>MINI 부천</b><br>Tel. 032.285.4600 | <b>MINI 목동</b><br>Tel. 02.2646.4600 | <b>MINI 송도 Complex</b><br>Tel. 032.213.4600 | <b>MINI 인천</b><br>Tel. 032.236.4600 | <b>MINI 일산</b><br>Tel. 031.8076.4600 | <b>MINI 스타필드 고양</b><br>Tel. 02.6932.4600 |
|-------------------------------------|-------------------------------------|---|-------------------------------------|--------------------------------------|--|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차종명 : MINI COOPER S 3DOOR (자동 6단 스포츠 변속기/배기: 1.998/공차중량: 1,280kg)  
 복합연비 : 12.6km/L (도심연비/고속도로연비: 11.3/14.9Km/L) 등급: 3 / 복합CO2배출량: 134g/km  
 \* 해당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위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 V E N T

- 11:00  
팬타틱 플리마켓  
부천시청 1층 로비
- 13:00  
영화 현장에서 바라보는  
'1주 52시간' (B.I.G)  
판타스틱큐브
- 14:00  
메이드 인 아시아 포럼 (B.I.G)  
고려호텔 4층 크리스탈룸
- 15:30  
요가워크숍  
BIFAN VR라운지
- 16:00  
까딱댄스워크숍  
BIFAN VR라운지
- 16:50  
메가토크 '영화 그리고 나,  
감독 구혜선을 말하다'  
판타스틱큐브
- 19:00  
B.I.G 개막 리셉션 &  
아시아 영화의 밤  
고려호텔 3층 그랜드볼룸
- 20:00  
<원컷 오브 더 데드(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야외상영 및 공연  
부천시청 잔디광장

표지사진 오계옥

S T A F F

- 발행인 배경록
- 편집장 주성철
- 취재팀장 이화정
- 취재 이주현 김현수 김소미
- 객원기자 김정현
- 사진 오계옥
- 사진객원 박종덕
- 디자인 김윤희 권지혜
- 제작총괄 심은하
- 제작 이준용
- 인쇄 (주)성전기획
- 부천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판타스틱오피스 (부천시청 별관)  
전화 032-327-6313
- 씨네21 데일리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3층  
어울마당 데일리 사무국
- 씨네21 주식회사 www.cine21.com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11  
SK V1센터 E동 1102호  
전화 02-6377-0500

# BIFAN board



## 스크린 밖으로 외출한 호러 아이콘

<나이트메어>의 프레디, <킬빌>의 브라이드, 좀비와 슬픔이까지 영화 속 캐릭터로 분장한 자원 활동가들이 관객을 찾아가고 있다. 이들과 함께 사진 촬영도 하고 게임 및 퀴즈도 즐겨보자. 찾아가는 이벤트는 13일(금)부터 19일(목)까지 영화제 행사장 전 지역에서 진행된다. 사진 오계옥



## 아시아 최고의 환상 영화를 찾아라

11회 아시아 판타스틱 영화 제작네트워크(Network of Asian Fantastic Films, 이하 NAFF)가 14일(토)부터 18일(수)까지 열린다. 올해는 환상영화학교와 '판타스틱영화 프로젝트마켓: 잇 프로젝트', 인도 영화산업과 교류할 '프로젝트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시체스영화제 피치박스', '노르딕 장르 인베이션', 판타스틱영화 마켓인 벤타나 수르(Ventana Sur)의 장르영화 산업프로그램 '블러드 윈도우(Blood Window)'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섹션을 운영한다. 총 19개국 28명이 참여하는 'NAFF 환상영화학교'는 13일(금) 개교식을 갖고 <문, 문, 문, 몬스터>(2017)의 제작자 장산링, <조지 루카스: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2010)의 제작자 알렉산더 오 필립 등의 강사진과 함께 6일간 영화제작 필수 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김현수



“좋은 이야기를 전도한다”

—  
조영혜  
산업프로그램팀 '잇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영화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영화 프로젝트들을 산업관계자들에게 소개하는 '잇 프로젝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영화제 준비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일본의 도쿄필름엑스 영화제에서 신인 감독을 육성하는 워크숍에서 일했다. 그곳에서 봤던 감독이 이번 '잇 프로젝트'에 선정돼 초청됐더라. 한 감독이 성장하고 영화가 완성되는 과정을 볼 수 있어서 뜻깊었다.

BIFAN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에 왔다고.

재일교포 4세대. 한국영화를 좋아해서 한국에서 영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 BIFAN에서 좋은 경험을 쌓고 다시 일본에 돌아갈 예정이다.

글 김정현 객원기자 · 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말.말.말.

“아는 일본 배우가 카세 료와 이와세 료 밖에 없었다.”

→ <한여름의 판타지아> GV에서 장건재 감독, 이제사 털어놓은 캐스팅 비화라며.

“<비트> 덕분에 지금까지 밥 먹고 산다.”

→ <비트> 메가토크에서 김성수 감독, 개인적인 소회를 묻는 질문에 답하며.

“배우가 스타가 되는 건 잠깐의 대중 현상일 뿐이다.”

→ <비트> 메가토크에서 배우 정우성, 촬영 현장에서의 동료 의식을 강조하며.

## 두 편의 깜짝 상영작 공개!

올해의 깜짝 상영작이 공개됐다. 첫 번째 깜짝 상영작은 <최악의 하루>(2016)로 21일(토) 오후 3시에 CGV소풍 4관에서 상영된다. 상영이 끝난 후에는 김종관 감독과 배우 한여리와 함께하는 GV도 마련되어 있다. 두 번째 깜짝 상영작은 K. S. 라빈드라 감독의 <삼형제>(2017)로 22일(일) 오후 5시 CGV소풍 2관에서 상영된다. 한 번으로 계획되었던 상영에 아쉬워할 관객을 위해 상영회차가 추가되었다. 아직 두 편의 깜짝 상영작이 공개되지 않았으니 긴장을 늦추지 말고 기다리자.



<최악의 하루>



오계옥

## 신비한 북한 SF의 세계

13일(금) 오후 2시 판타스틱큐브에서 북한의 SF문학과 영화에 대해 논의하는 'SF 판타스틱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박상준 서울SF아카이브 대표와 이지용 한국SF협회 학술이사의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박상준 대표는 “남한보다 북한의 독자들이 SF에 더 익숙할 것”이라고 말하며 국가적 지원을 받는 북한 SF가 대중적으로도 친숙하며 발전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과학상문학'이라고 불리는 북한 SF의 특징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오계옥

## 인디스토리의 20년을 한눈에

1998년 창립 이후 독립영화 배급, 제작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인디스토리의 20주년을 기념해 BIFAN 기간 동안 무료로 상설 전시가 열린다. 부천시의회 1층 로비의 갤러리에 자리한 전시는 '인디스토리 20주년 특별상영'

갓 스물! 판타스틱 전력질주' 섹션에서 상영되는 5편의 장편과 14편의 단편 하이라이트를 포함해 포스터, 콘티북, 시나리오집 등 인디스토리의 자취를 연혁별로 정리했다. 전시장 안 쪽에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어 느긋하게 둘러보기에 안성맞춤이다.



〈대관람차〉 백재호 · 이희섭 감독 & 배우 강두

멀리서 너의 모습을  
쉬어가기

배우 강두, 이희섭, 백재호 감독(왼쪽부터).

회사 출장지 오사카에서 사라진 직장 동료로 찾아 헤매던 남자 우주의 삶은 갑갑하다. 〈대관람차〉는 낮선 곳에서 며칠을 머무르던 우주가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고 삶의 활력을 찾아주게 되는 과정을 담담하게 보여주는 영화다. 영화 안팎으로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들을 되짚는 시도를 하는 백재호, 이희섭 공동감독, 그리고 배우 강두를 만나 영화의 제작과정에 대해 물었다.

오사카를 배경으로 한 영화 〈대관람차〉는 어떤 기획에서 시작된 것인가.

백재호 나의 극단 선배인 지대한 배우의 절친 이종언 프로듀서는 일본을 오가며 오랫동안 음악 활동을 해오신 분인데, 어느 날 오사카 배경의 음악영화를 만들어보지 않겠느냐고 연락해왔다. 직접 시나리오도 써보면 어떠냐는 제안에 오사카 답사를 하면서 지금의 시나리오를 썼다.

강두 나 역시 지대한 배우에게 어느 날 정말 뜬금없이 전화를 받았다. 시나리오 보낼 테니까 한 번 보라고. (웃음) 지대한 배우는 우주가 찾아나서는 직장 선배 대정 역을 연기하기도 했다.

이희섭 음악영화이기에 가수 출신의 배우가 주연을 맡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주 역에 강두 씨를 떠올렸다.

백재호 감독과 이희섭 감독이 공동 연출을 맡았다.

백재호 우리 둘은 배우와 촬영감독의 관계로 처음 알게 됐다. 내 첫 연출작 〈그들이 죽었다〉(2014) 촬영을 도와주기도 했다.

이희섭 우리는 서로 코드도 안 맞고 참 다른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함께 작업하고 있는 것 같다. 백감독이 각본과 배우 디렉팅 위주의 연출을 하고 나는 촬영감독을 겸하며 미장센과 콘티 쪽을 맡는 식으로 작업했다.

선박사고로 실종된 선배 대정(지대한)을 찾아나선 주인공 우주의 오사카 여정은 결국 한국의 세월호 참사에 관한 슬픔과 일본인들이 지닌 슬픔 모두를 아우르는 의미의 여정 같다.

백재호 우리라고 해서 일본인의 자연재해 피해를 정확하게 가능할 수 있겠냐. 그럼에도 공통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대관람차를 타고 세상을 둘러보듯, 가까이 다가가서 보기는 어려운 것을 멀리서 지켜보는 심정으로 찍었다.

주인공 우주는 자신의 삶을 주도해나가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면을 지닌 담

답한 인물이다.

강두 내가 캐스팅되고 나서 역할 비중이 40%에서 90%로 늘어났다. (웃음) 내가 우주처럼 마냥 착하고 순진하지만도 않다. 이번 영화에서는 섬세한 디테일, 혹은 평범한 모습을 표현하는 걸 도전하고 싶었다.

백재호 간단히 말해 사람이 멋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연기 주문을 했다.

강두 우주를 연기하면서 두 분 감독님을 레퍼런스 삼아 연기했다. (좌중 폭소) 아니 진심이다. 감독님들의 디테일을 많이 참고했다. 아니 어떻게 오사카에 촬영하러 가면서 일본어를 한 마디도 모를 수가 있지? (웃음) 나도 일본어를 못했는데 연기하기 위해 무작정 외웠다. 언어영역 공부하는 학생의 마음가짐으로 했는데도 오사카 사투리는 어쩔 수 없이 티가 나더라.

백재호 감독의 전작 〈그들이 죽었다〉를 본 관객이라면 두 영화가 자연스럽게 오버랩될 것 같다.

백재호 맞다. 〈그들이 죽었다〉의 주인공이 일본으로 간다면 우주처럼 되지 않을까 상상했고, 그가 노인이 되면 극중 공원을 배회하는 할아버지처럼 지구에 떨어질 운석을 걱정하는 모습으로 늙을 것 같았다. 나의 평소 고민이 자연스럽게 투영된 셈이다.

이희섭 '대관람차'를 타면 느낄 수 있는 경험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보지 말았으면 했다. 까마득히 아래 보이는 티끌 같은 사람도 살피고, 한 번쯤은 자기도 돌아 볼 줄 알아야 한다. 멀리 있는 것도 내다보며 쉬어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영화에 담았다.

〈대관람차〉는 8월에 국내 개봉 예정이다. 개봉 이후 차기작 계획은 세웠나?

강두 8월에 드라마, 9월에 영화 한 편이 계획되어 있고, 올해 초에 많이 놀아서 연말에는 바쁘게 활동할 생각이다. 8월 개봉 즈음에는 〈대관람차〉 관련 공연도 할 예정이다.

백재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연출한다. (무현, 두 도시 이야기)(2016) 제작진과 만들고 있다. 퇴임 이후 봉하 마을에 내려가서 그 분이 하려던 것은 무엇이였을까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이희섭 다큐멘터리 〈나는 집사〉를 촬영 중이다. 춘천 지역의 노인들만 사는 동네를 배경으로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글 김현수 · 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 Preview

등급 Rates © 전체 관람가 General © 12세 이상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 15세 이상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 18세 이상 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 청소년 관람 불가 Under 19 not admitted  
 상영관 Theaters CH 부천시청 어울마당 FC 부천시청 판타스틱큐브 LS 부천시청 잔디광장 BU3 CGV부천 3관 BU4 CGV부천 4관 BU5 CGV부천 5관 BU6 CGV부천 6관 BU7 CGV부천 7관 BU8 CGV부천 8관  
 S02 CGV소풍 2관 S03 CGV소풍 3관 S04 CGV소풍 4관 S05 CGV소풍 5관 S06 CGV소풍 6관 MM 한국문화박물관 SS 송내술안이트홀



## 블루 마이 마인드

Blue My Mind

리사 브릴만 | 스위스 | 2017년 | 97분 | 월드 판타스틱 블루  
 7.14 S05 10:20 | 7.19 S02 20:30 | 7.20 BU4 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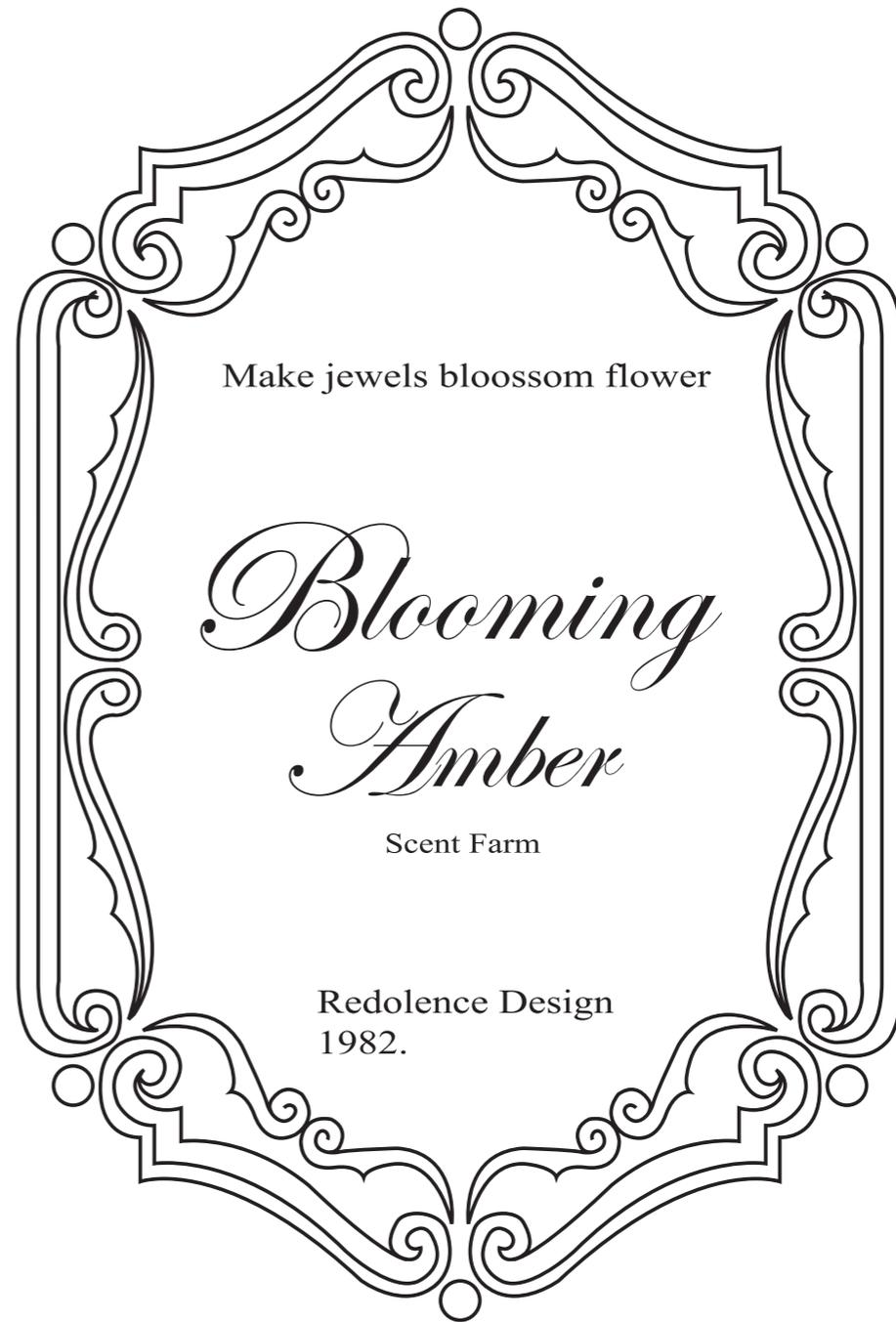


15살 미아는 전학 간 학교에서 이른바 잘나가는 문제아 친구들을 사귀며 일탈을 즐긴다. 성적 호기심도 왕성해지고 비행도 과감해진다. 그런데 사춘기 소녀의 단순 일탈이라기엔 미아의 내적 요동이 심상치 않다. 미아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미아의 기행을 부추긴다. 수족

관의 물고기를 잡아먹는 이상행동은 징후적 신체 변화로 이어진다. 첫 생리를 하게 된 날, 미아는 자신의 발가락이 서로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심리적, 신체적 변화를 스스로 감지하는 동안 미아는 어쩌면 자신이 부모의 친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실존적 질문이 미아에게 절실하고 절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아의 몸이 점점 어류의 형태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블루 마이 마인드〉는 물고기 인간이라는 판타지적 설정을 10대의 성장 드라마와 접목한 작품이다. 남들과 달라지고 싶지만 동시에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큰 두려움으로 작동하는 시기가 10세대. 영화는 물고기 인간이 되어가는 미아를 통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10대 소녀의 심리를 예리하게 포착한다. 리얼리티와 판타지의 거센 충돌은 심리적으로도 시각적으로도 큰 파장을 안긴다. 물고기 인간의 구현도 기예르모 델 토로의 〈세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 못지않다. 스위스 출신의 배우 겸 감독인 리사 브릴만의 섬세하면서도 힘 있는 연출이 인상적이다.

이주현



The product of Blooming Amber pursues individual essence and value rather than showy modifications or decorations.

Fragrance  
 Candles, diffusers, perfumes, and fabric mists

Skin & Body  
 Natural soaps, oriental shampoos & body washes, body mists, body lotions, and body oils

# Preview

## 궂주린 Ravenous

로뱅 오베르 | 캐나다 | 2017년 | 100분 | 월드 판타스틱 레드  
7.14 BU7 10:30 | 7.20 BU7 19:30 | 7.22 BU3 16:30



캐나다에서 날아든 낯선 좀비영화. 퀘벡의 작은 시골 마을에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퍼져 사람들이 좀비로 변해간다. 오랫동안 한 마을에서 지내온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 지인들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게 된다. 로뱅 오베르 감독의 <궂주린>이 여타 좀비영화와 조금 다른 점은 바로 영화의 주인공이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점. 죽은 사람들도, 살아남은 사람들도 모두가 그저 평범한 소년이자 어머니이자 청년들일 뿐이다. 이유 없이 분노하고 질주하는 좀비의 형태는 2000년대 이후 좀비의 모습과 다를 바 없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을씨년스러운 마을 풍경은 기존의 좀비 영화에서 본 적 없는 서글픈 이미지다. 로뱅 오베르 감독은 로베르 브레송과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영화들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말한 바 있다.

김현수

## 안나와 종말의 날 Anna and the Apocalypse

존 맥페일 | 영국 | 2017년 | 107분 | 월드 판타스틱 블루  
7.14 MM 13:00 | 7.21 CH 14:30



10대의 안나. 성인이 되면 아빠의 품을 떠나 더 큰 세상으로의 여행을 꿈꾸고 있다.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고 무사히 새해를 맞았다면 안나의 꿈은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시즌, 좀비떼가 출몰해 마을과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다. 안나와 친구들은 학교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좀비들의 공격을 방어한다. 좀비가 된 친구와 선생님의 머리를 내리쳐야 하는 상황에도 직면하지만 어쨌든 당장은 살고 볼 일이다. <안나와 종말의 날>은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평범한 스쿨 드라마처럼 시작한다. 그러다 뮤지컬영화로서의 매력을 어필하는 건가 싶은 순간 좀비영화의 장치들을 소환한다. 뮤지컬영화의 명량함과 좀비영화의 영동함과 크리스마스 가족영화의 훈훈함까지 각 장르의 매력을 적절히 배합해, 이토록 영동한 만남에 적당한 이유를 제시한다.

이주현

## 공포의 침입자 Terrified

데미안 루냐 | 아르헨티나 | 2017년 | 87분 | 월드 판타스틱 레드  
7.14 CH 24:00 | 7.17 BU6 20:00 | 7.20 BU5 20:00



은퇴를 한달여 앞둔 푸나스 경감은 최근 이상한 사건에 휘말린다.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깬 남자가 욕실에서 충격적인 자해 현장을 목격한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해 장례까지 치른 아이가 살아 돌아온 사건 등 한 마을에서 이상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것. 초자연적 현상임을 직감한 경찰은 관련 수사 경력자 수사관과 박사를 소집한다. <공포의 침입자>는 초자연적 현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하우스 호러 장르 영화들, 혹은 원혼에 싸인 집에 서식하는 괴상하고 끈적한 악령의 형체를 보여주는 일본의 공포영화 등 세계 장르영화 흐름의 장점을 모아 조합한 영화 같다. <컨저링> 시리즈로 대변되는 최근 공포영화의 트렌드도 흡수해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한다. 1980년대 공포영화의 정서와 21세기 공포영화의 전략이 교묘하게 결합한 수작이다.

김현수

# 수업으로 희망이 시작되는 곳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진료예약(콜센터): 1899-5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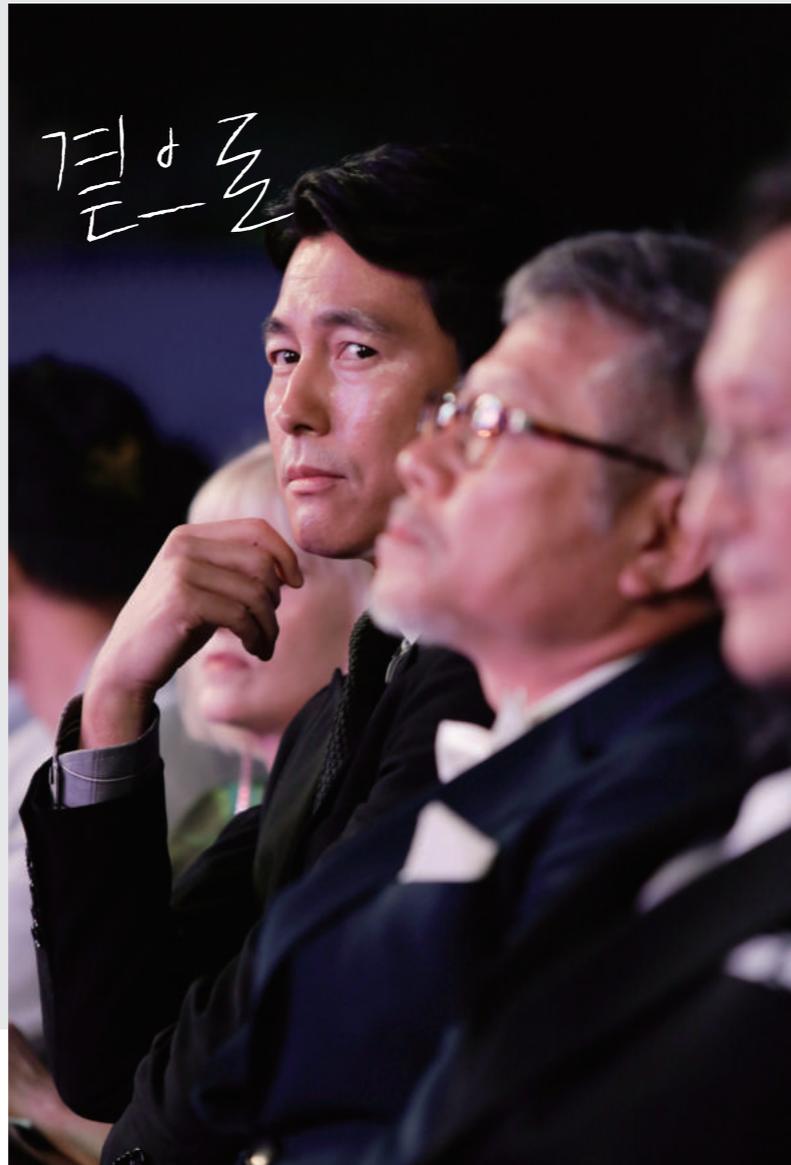
# Special

“쉬지 않고 장르를 개척해 온 정우성이야말로 우리 영화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라는 모은영 프로그래머의 말처럼, BIFAN의 특별전 ‘스타, 배우, 아티스트 정우성’ 섹션에 선정된 12편의 대표작들은 정우성이 스스로 틀을 깨고 나오는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비트>(1997), <내 머리 속의 지우개>(2004),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2008), <아수라>(2016) 등 정우성이라는 징검다리를 거쳐 한국영화의 성취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개막식 이튿날인 13일, 3시30분에 열린 특별전 기자회견에 참석한 그는 이번 상영이 “긴 방향의 시간이 결국 어떤 여행이 되었는지 말해 줄 것 같다”고 내밀한 소회를 드러냈다. 이어 부천시의회 1층 갤러리에 마련된 특별전 기념 전시 개전식에 참석하고, <비트> 상영 후 김성수 감독과 메가토크를 갖기까지 정우성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환호와 함성이 끊이지 않았다. <구미호>(1994)로 데뷔한 이래 약 25년이 흘렀지만 행사에 참석한 정지영 조직위원장과 최용배 집행위원장은 이번 특별전을 각각 “중간점검” 혹은 “전반전”이라 표현했다. 정우성의 후반부는 제22회 부천국제영화제에서 시작될 모양이다. 올해 BIFAN이 마련한 다채로운 공식 행사들의 서막을 알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의 멋진 하루를 포토 스케치로 담았다.

글 김소미 · 사진 오계옥, 박종덕 객원기자

스크린을 넘어  
우리

**‘스타, 배우, 아티스트 정우성’  
특별전 행사로 만난  
배우 정우성**



## 개막식

조명인지 후광인지 분간이 안 간다. 열 장 찍으면 열 장 모두 잘 나온다. 12일 저녁 BIFAN 개막식, 정우성을 찍은 포토그래퍼들은 사진을 고르다 말고 모두 비슷한 고민에 처했다. 그냥 객석에 앉아있을 뿐인데도 감탄을 자아내는 정우성은 타고난 아름다움에 안주하지 않았다. 자신을 향한 카메라 렌즈에 일일이 눈을 맞춰준 그를 두고 팬들과 기자들 모두 훈훈한 미담을 공유하기 바빴다.



## 기자회견

13일 열린 특별전 ‘스타, 배우, 아티스트 정우성’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우 정우성과 최용배 집행위원장. “정우성은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 정우성은 자신의 필모그래피에 대한 대중들의 감상을 이 한마디로 요약했다. “돈없을 만큼 전장에서 구축해 둔 것과 전혀 다른 작품을 선택하기도 했다”는 그는 “주목받는 것 보다는 도전 정신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다”고 회고했다. 주요 작품을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특별전 12편도 고를 수 없어서 영화제 측에 맡겼다”며 “관객과 작품들 사이에 저마다 운명적인 인연이 있을 것”이라 전했다.



## 전시

(왼쪽부터) 특별전 기념 전시를 위해 모인 최용배 집행위원장, 김성수 감독, 정우성 배우, 정지영 조직위원장. ‘하나, 둘, 셋~!’ 부천시의회 1층 갤러리에 모인 관객들이 다함께 외치는 가운데 개전을 알리는 테이프 컷팅식이 이뤄졌다. 전시장 포스터 앞에서 화기에애한 추억에 잠긴 김성수 감독과 정우성. 영화제 기간 중 무료 공개되는 이번 전시는 개봉예정작 <인랑>을 포함해 정우성의 전체 출연작 26편의 자료를 망라했다.

## 메가토크

5시30분 <비트> 상영 후 열린 메가토크에 참석한 정우성과 김성수 감독. 정우성은 <비트>에 “배우로서 처음 세상을 박차고 나온 순간의 모습이 담겨있다”는 말로 영화제 측의 선정 이유를 추측했다. 이어 “다시 보니 오글거렸다”고 너스레를 떠는 등 막역한 두 사람의 입담이 한 시간을 가득 채웠다. 김성수 감독은 “주변의 일들을 대하는 우성씨의 태도에 놀랐다. 신념을 지키는 한 인간으로서 정말 근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 등과 같은 정우성의 최근 활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 반짝이는 위태로움의 미학

**특별전 '스타, 배우, 아티스트 정우성'으로 돌아본 정우성론**

정우성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 종종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그가 오래 전 한 광고에서 장뜨이를 향해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며 “가! 가! 가! 말이야!”하고 소리 지르던 장면이 그것이다. 이 장면이 유독 인상 깊은 이유는 눈에 눈물을 그득히 담고서 연인을 향해 악다구니를 쓰는 그 위태로운 얼굴 때문이다. 생각하자면 정우성은 늘 그랬다. 부드러운 미소는 더할 나위 없이 멋지지만, 이상하게도 정작 깊이 각인되는 것은 지극히도 황폐한 그의 얼굴이었다. 저 광고에서 보인 피폐한 얼굴은 조금씩 결을 달리하며 그의 작품들을 은밀하게 횡단하는데, 이것이 배우 정우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정우성을 대중에게 알린 두 편의 영화, 〈비트〉(1997)와 〈태양은 없다〉(1998)에서 그는 방황하는 아름다운 청춘을 연기한다. 그런 순간들이 있다. 연기자가 애를 써서 하나의 배역을 창조했다기보다 자신과 꼭 맞는 역할과 운명적으로 만났다는 느낌을 주는 순간들. 여기서 젊은 시절의 정우성은 잘 맞는 옷을 한 벌 입은 듯 자연스럽게 강렬한 매력을 뽐어낸다. 그가 단숨에 스타덤에 오르며 아직까지도 청춘의 대명사로 거론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 운명적인 만남, 배우와 배역의 극적인 합일의 저변에 방황의 정서가 드리워져 있음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그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배우 정우성에게는 여전히 위태

로운 남자의 초상이 어른거린다. 북에서 온 최정에 요원을 연기한 〈강철비〉(2017)에서도 정우성은 슬픔의 깊이를 가늠하기 힘든 공허한 눈빛을 하고 있다. 멜로 영화를 찍을 때조차 정우성이 맡은 인물은 자주 절박한 상황에 처한다. 〈내 머리 속의 지우개〉(2004)에서는 기억을 잃어가는 연인의 모습을 지켜봐야 하며, 〈마담 뵙덕〉(2014)에서는 자신을 파괴하는 여자의 곁을 떠나지 못한다. 그가 이런 배역들을 맡는 것에는 어딘가 애수 어린 마스크 탓도 있겠지만, 스크린 위에서 뿜어내는 정우성 특유의 절박한 느낌도 한몫을 하는 것 같다. 그는 〈아수라〉(2016)에서 다시 한번 수세에 몰린다. 도경(정우성)이 얼굴에 피칠갑을 하고서 광포하게 차를 몰던 장면, 그리고 선모(주지훈)와 좁은 복도에서 대면하던 순간을 떠올려보자. 궁지에 몰리다 못해 낭떠러지 앞에 선 바로 그 순간, 정우성의 연기는 어딘가 빛이 난다. 물론 〈무사〉(2001)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2008)에서 긴 팔다리 액션을 보여줄 때나, 〈감시자들〉(2013)과 〈더 킹〉(2016)에서 악역을 연기할 때에도 정우성의 장점들은 심분 발휘된다. 그러나 정우성이 가장 돋보이는 순간은 역시 피폐하고 황량한 내면의 남자를 연기할 때다. 제 웃을 입을 듯 자연스러웠던 〈비트〉와 〈태양은 없다〉, 그리고 배우로서 한 걸음 나아가 〈아수라〉와 〈강철비〉에서의 연기를 떠올려보면 알 수 있다. 비극을 예감하면서도 달릴 수밖에 없을 때, 불가능인 줄 알면서도 삶의 희망을 찾아 허덕일 때 비로소 정우성의 연기는 반짝인다.

올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특별전 '스타, 배우, 아티스트 정우성'에서 그가 출연한 영화 12편을 상영한다. 생각해보면 정우성만큼이나 비현실적인 느낌의 배우도 많지 않을 것이다. 비현실적으로 수려한 외모로 현실의 바닥에서 견뎌낸 고통을 연기할 때, 양극단을 건디는 그의 육체는 지극히 영화적이다. 종종 정우성이 연기하는 고갈된 인간의 모습이 그와 완전히 분리되어 새롭게 창조된 것인지 궁금해진다. 나는 오히려 정우성이 그가 지닌 고통의 감각을 남몰래 꺼내 영화 안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가 연기하는 인물들의 피폐함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는 누구도 끝내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방황하던 아름다운 얼굴이 인생의 황폐함을 담기까지, 정우성은 아마도 자주 메마름을 삼켜야 했을 것이다. 아니, 이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다. 그는 말라붙은 자리를 부지런히 찾아다녀야 했을 것이다. 그런 시간들이 쌓여 이제 그는 고갈된 인간의 감각을 자기만의 얼굴로 담아낼 줄 아는 배우가 되었다. 그 얼굴이, 그때의 연기가 배우 정우성의 인장처럼 느껴진다고 말해도 좋을까.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는 어느새 매력적인 배우가 되어 다시 우리를 찾아왔다.

홍수정 영화평론가

## feature

### “나만의 미학적 색깔을 가져야 한다”

**조코 안와르 마스터클래스 자상중계**



인도네시아 감독 조코 안와르의 마스터클래스가 13일(금) CGV부천 5관에서 열렸다. 11회 BIFAN에 처음 방문한 이래 부천과 깊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그는 지난해 자국 박스오피스에서 1위를 차지하고 30여개국에 수출된 〈사탄의 승배자〉와 함께 관객을 만났다. 남종석 프로그래머의 말처럼 “이제는 스타가 된” 조코 안와르 감독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많은 관객이 극장을 채웠다.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그의 이야기를 생생히 전한다.

저는 인도네시아 북부 수마트라의 빈곤한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아이가 지내기에는 혹독한 환경이었고 저는 그런 삶에서 탈출하기 위해 영화관에 갔습니다. 하지만 티켓을 살 돈이 없어 환풍기 틈으로 영화를 보곤 했죠. 처음으로 티켓을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영화관에서 본 영화가 시스우로 가우타마 푸트라 감독의 〈사탄의 승배자〉(1982)였습니다. 그 순간은 가장 강렬했던 영화적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느낀 영화적 경험을 관객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탄의 승배자〉는 저에게 큰 인상을 남긴 영화였고 이 영화를 리메이크하고 싶다는 열망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완벽한 영화를 어떻게 다시 만들까 하는 생각에 프리퀀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10년 동안 제작자를 쫓아다녔고 결국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감독은 스토리텔링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때 감독에게는 두 가지 도구

가 있는데, 하나는 기술적인 도구이고 다른 하나는 미학적인 도구입니다. 기술적인 도구는 영화가 처음 만들어진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축적해놓은 이론이나 제작 기법 같은 것으로, 책이나 학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미학적인 도구는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미학적인 것은 모두 경험에서 나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삶을 더 느껴야 합니다.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과 만나고 여러 문화를 접하면서 인간과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감독은 미학적인 색깔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호러 장르에 열광적입니다. 이번 영화를 함께한 라피 필름에서도 과거에 많은 호러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호러에 열광적인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미신을 많이 믿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다른 작업을 할 때 인도네시아의 귀신 목록을 만든 적이 있는데 42종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인도네시아의 호러 영화는 놀라게 하는 것에만 집중했고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관객도 호러 영화에 차츰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도네시아 호러의 뉴웨이브라고 부를 수 있을만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러 영화의 장점을 이해하고 좋은 스토리텔링과 좋은 배우, 연출, 기술이 있다면 호러 영화가 인도네시아 영화를 세계에 알리는 추진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리 김정현 객원기자 · 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FEATURE

## The Victorious B.I.G.

Calling all genre filmmakers - the BIFAN Industry Gathering (B.I.G) begins today! Running from 14th-18th, B.I.G. is a special program designed to create an infrastructure that supports and promotes genre filmmaking in Korea - and by extension throughout Asian nations via facilitating project meetings, co-productions and building relationships with other industry programs. For genre filmmakers, B.I.G. is an invaluable resource, one which covers four areas:

### NAFF - Network of Asian Fantastic Films

NAFF is a vital part of BIFAN's identity. Launched ten years ago, NAFF provides a platform for filmmakers to receive production support through the awards initiative and global exchange/networking via project markets. Relationships developed with other genre organisations including Nordic Genre Invasion (Northern Europe), Blood Window (South America), and Sitges Pitchbox (Europe's largest fantastic film festival) provide another source of support for filmmakers for marketing, distribution, and collaboration. Finally, NAFF hosts the Fantastic Film School in which successful applicants will be tutored by established professionals through workshops and forums during the course of BIFAN.

### MADE IN ASIA

MADE IN ASIA is designed to bring together a host of top Asian producers in order to develop relationships across borders and discuss market trends. Through these interactions ties can be forged and strengthened, and the potential for co-productions, distribution deals, and mutual exchange can grow exponentially.

Meanwhile the BEST IN ASIA film program selects the one of the top three highest grossing films from eleven nations across the continent to be screened throughout BIFAN, for audiences and filmmakers alike to experience neighbouring film industry trends and join in the conversation.

### KOREA 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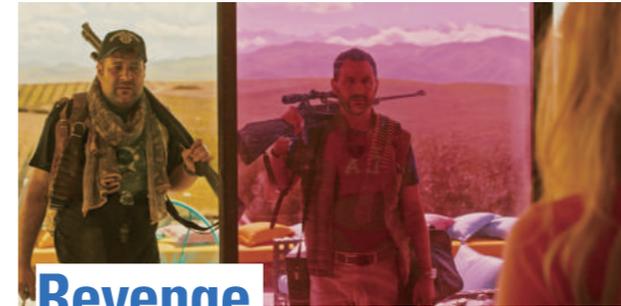
Korea has a healthy film industry and a strong cinema-going public, yet imbalances continue to exist particularly in regards to independent and low-to-mid budget films. KOREA NOW seeks to address such issues by providing workshops, forums, showcases and presentations to help support domestic genre filmmakers achieve their respective visions. There will also be special debates that involve examining the monopoly enjoyed by conglomerates, the fallout of the recent artist blacklist, and other recent politically motivated issues that have had an impact on the cinema industry.

### NEW MEDIA

As always, the discussion and exploration of new technological trends and advancements is integral to BIFAN and 2018 is no exception. Through the NEW MEDIA program, BIFAN has crafted the VR VILLAGE - an arena in which VR professionals can share their knowledge and insights into the rapidly evolving technology, and where attendees can go to experience true immersion into new and fascinating worlds. There are an array of different stories for audiences to enjoy at the VR VILLAGE, located at Bucheon Central Park, which will operate until July 22nd.

Simon McEnteggart

REVIEW



## Revenge

Coralie FARGEAT | 2017 | 108min | Bucheon Choice: Features

French director Coralie FARGEAT's thriller *Revenge* is certainly the most high profile exploitation film in recent memory, and for good reason. The rape-revenge tale is a tour-de-force of suspense-fuelled sequences, wince-inducing violence, and blood-soaked vengeance throughout, as well as providing cinema with a new bad-ass feminist icon to boot.

The story follows Jen, who elopes with her wealthy boyfriend to enjoy a romantic retreat in the desert, yet while there his two friends arrive early for their annual hunting trip. As things become heated between them, Jen is raped and left for dead in the scorching desert. However she miraculously survives, and embarks on a quest of bloody vengeance.

*Revenge* is definitely not for the squeamish. It is a visceral, brutal film that excites and terrorises in equal measure, pausing briefly to provide cathartic ultra-violence as the misogynistic antagonists pay for their misdeeds.

Sexual politics are, as expected, of paramount importance and *Revenge* tackles the issues head on. Jen knowingly uses the *Lolita* concept to her advantage and is very aware of her sexual charisma, yet director FARGEAT emphasises such behaviour in no way justifies assault by brilliantly crafting almost unbearable tension and fear in the rape scene and beyond, furthered by dialogue that continually highlights the toxicity of male entitlement.

*Revenge* is a gloriously bloody, epic takedown of male privilege, and a ferocious cinematic experience.

Simon McEnteggart

INTERVIEW



## The SITGES Connection

MIKE HOSTENCH is no stranger to genre cinema. Co-director of the acclaimed Sitges Festival in Catalonia, he also has credits as a scriptwriter, producer, and is planning to direct his first film. He confesses to, "eat, drink, smoke and breath horror movies."

What is Sitges Pitchbox, and what is the relationship with BIFAN?

Sitges Pitchbox is a project lab, held during the Sitges Festival. Our relationship with BIFAN and NAFF goes a long way back. I've been to BIFAN seven times, and been a jury member three times - and now we're on our 3rd year of collaboration with NAFF. In general, Sitges has always been on the vanguard in promoting Korean films in Sitges, so it's really organic that Sitges collaborates profusely with BIFAN and NAFF.

You're a big supporter of BIFAN. What attracts you to the festival?

I have been a big fan of Korean film, culture and history all my life. Also Sitges has been always very interested in Korean movies. When other festivals in Europe had 2-3 Korean films in their line-up, we had an average of 15.

What films are you looking for at BIFAN this year?

Mostly Asian movies that could have been under our radar. Every year I find awesome movies in BIFAN that I include in the Sitges line-up. I remember incredible movies I got from BIFAN like Frant Gwo's and Yang Li's Lee's Adventure. That was a blast.

Simon McEnteggart

# Screening 07.14.SAT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b>CH</b> City Hall, Main Theater (2F)	<b>201</b> 10:00 파딜 형님 2 Big Brother Fadil 2 95min/㉔		<b>202</b> 12:00 업그레이드 Upgrade 100min/㉔		<b>203</b> 14:00 <b>GV</b> 폐쇄병동 The Closed Ward 111min/㉔			<b>204</b> 17:10 메르살 Zapped 169min/㉔				<b>205</b> 20:30 칼 + 심장 Knife + Heart 102min/㉔	
<b>FA</b> City Hall, Fantastic Cube(1F)							<b>206</b> 16:00 인디스토리 단편 3 + 메가토크 INDIESTORY Shorts 3+ MegaTalk 50min+Talk/㉔						
<b>MM</b> Korea Maniwa Museum	<b>207</b> 10:30 이별의 아침에 약속의 꽃을 장식하자 Maquia: When the Promised Flower... 115min/㉔		<b>208</b> 13:00 <b>GV</b> 안나와 종말의 날 Anna and the Apocalypse 107min/㉔				<b>209</b> 16:00 인 더 더스트 Just a Breath Away 89min/㉔	<b>210</b> 18:00 <b>GV</b> 킬러, 그녀 Yaru Onna - She's a Killer- 84min/㉔		<b>211</b> 20:00 <b>GV</b> 곤지암 Gonjiam: Haunted Asylum 94min/㉔			
<b>S02</b> CGV Sopoong 2	<b>212</b> 10:00 <b>GV</b>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8 Fantastic Short Films 8 70min/㉔		<b>213</b> 12:30 카니바 Caniba 90min/㉔		<b>214</b> 15:20 <b>GV</b> 세인트 아가타 St. Agatha 98min/㉔			<b>215</b> 18:00 <b>GV</b>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5 Fantastic Short Films 15 72min/㉔		<b>216</b> 20:30 금남의 집 The Misandrists 91min/㉔			
<b>S03</b> CGV Sopoong 3	<b>217</b> 10:00 올레니아 Eullenia 127min/㉔		<b>218</b> 12:40 <b>GV</b>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1 Fantastic Short Films 11 69min/㉔		<b>219</b> 15:00 <b>GV</b>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20 Fantastic Short Films 20 76min/㉔			<b>220</b> 17:30 <b>GV</b>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9 Fantastic Short Films 19 70min/㉔		<b>221</b> 20:00 <b>GV</b> 극한캠프 Ruin Me 87min/㉔			
<b>S04</b> CGV Sopoong 4	<b>222</b> 10:30 거리의 래퍼 Respetto 96min/㉔		<b>223</b> 12:40 자봉 위의 모험 Look Up 90min/㉔		<b>224</b> 14:30 <b>GV</b>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 Fantastic Short Films 1 69min/㉔			<b>225</b> 17:00 논스톱: 다마스쿠스 타겟 Damasus Time 113min/㉔		<b>226</b> 20:00 <b>GV</b> 리벤지 Revenge 108min/㉔			
<b>S05</b> CGV Sopoong 5	<b>227</b> 10:20 블루 마이 마인드 Blue My Mind 97min/㉔		<b>228</b> 12:30 <b>GV</b> 하쿠나 마타타 폴레 폴레 Hakuna Matata Pole Pole 97min/㉔			<b>229</b> 15:30 새드 뷰티 Sad Beauty 92min/㉔		<b>230</b> 17:30 <b>GV</b> 삼촌 The Uncle 100min/㉔		<b>231</b> 20:20 <b>GV</b> 신을 죽여라 Killing God 92min/㉔			
<b>S06</b> CGV Sopoong 6	<b>232</b> 10:00 섹스미션 Sexmission 116min/㉔		<b>233</b> 12:30 에어리언 Alien 117min/㉔		<b>234</b> 15:00 더 크리미널 마인드: 공공의 적 The Liquidator 124min/㉔			<b>235</b> 17:30 비스트 Beast 107min/㉔		<b>236</b> 20:30 <b>GV</b> 도축업자, 창녀 그리고 외눈박이 남자 The Butcher, the Whore and... 105min/㉔			
<b>BU3</b> CGV Bucheon 3	<b>237</b> 10:30 비밀의 가족 The Mysterious Family* 93min/㉔		<b>238</b> 12:30 맘 Mom 146min/㉔		<b>239</b> 15:20 <b>GV</b>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4 Fantastic Short Films 14 69min/㉔			<b>240</b> 17:40 <b>GV</b> 불량가족, 행복의 맛 Goodbye, Grandpa! 104min/㉔		<b>241</b> 20:30 <b>GV</b> 행복의 나라 Land of Happiness 86min/㉔			
<b>BU4</b> CGV Bucheon 4	<b>242</b> 10:00 <b>GV</b> 반드시 크게 들을 것 Turn It Up To 11 93min/㉔		<b>243</b> 13:00 <b>GV</b> 부천 초이스: 단편 2 Bucheon Choice: Shorts 2 87min/㉔		<b>244</b> 15:40 <b>GV</b>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0 Fantastic Short Films 10 70min/㉔			<b>245</b> 18:00 <b>GV</b> 아임 크레이지 I'm Crazy 86min/㉔		<b>246</b> 20:30 <b>GV</b> 세 친구 Braid 85min/㉔			
<b>BU5</b> CGV Bucheon 5	<b>247</b> 10:00 <b>GV</b> 카블에 헤비메탈을! RocKabul 90min/㉔		<b>248</b> 12:30 <b>GV</b> 부천 초이스: 단편 1 Bucheon Choice: Shorts 1 99min/㉔		<b>249</b> 15:20 <b>GV</b> 로메르를 찾아서 Looking for Rohmer 83min/㉔			<b>250</b> 17:40 <b>GV</b> 공포학원 The Blue Choker 104min/㉔		<b>251</b> 20:30 <b>GV</b> 그녀에게는 죄가 없다 The Hungry Lion 78min/㉔			
<b>BU6</b> CGV Bucheon 6	<b>252</b> 10:30 <b>GV</b> 코리아 판타스틱: 단편 Korean Fantastic: Shorts 94min/㉔			<b>253</b> 13:50 <b>GV</b> 청춘빌라 살인사건 Dogs in the House 93min/㉔		<b>254</b> 16:20 보안관 The Ranger 80min/㉔		<b>255</b> 18:00 <b>GV</b> 데스트랩 The DMZ 93min/㉔		<b>256</b> 20:30 <b>GV</b> 요정 The Tokoloshe 91min/㉔			
<b>BU7</b> CGV Bucheon 7	<b>257</b> 10:30 검주린 Ravenous 100min/㉔		<b>258</b> 12:40 <b>GV</b> 인디스토리 단편 2 INDIESTORY Shorts 2 79min/㉔		<b>259</b> 15:20 핀쿠션 Pin Cushion 82min/㉔			<b>260</b> 17:30 똥개 Mutt Boy 101min/㉔		<b>261</b> 20:00 부동산 The Real Estate 88min/㉔			
<b>SS</b> Solan Art hall			<b>262</b> 13:00 수파 모도 Supa Modo 74min/㉔		<b>263</b> 15:30 자연의 반란 ZOOks 97min/㉔					<b>2001</b> 19:00 교통질서를 잘 지키자요 Let's Keep the Traffic Order 73min/㉔			

24:00 라틴 장르영화 부흥회 ¡Vamos! ¡Latin Genre Films! <b>GV</b>			
<b>CH</b> City Hall, Main Theater (2F)	<b>265</b> 카니발 클럽 The Cannibal Club 81min/㉔	<b>265</b> 거주자 The Inhabitant 89min/㉔	<b>265</b> 에피쿠엔 잔혹사 What the Waters Left Behind/98min/㉔
		<b>265</b> 공포의 침입자 Terrified 87min/㉔	

24:00 호러 마니아를 위한 특별 심야 상영 Special Screening for Horror Maniacs		
<b>FA</b> City Hall, Fantastic Cube (1F)	<b>266</b> 뱀파이어 Lifeorce 101min/㉔	<b>266</b> 공포의 휴가길 The Hills have Eyes 89min/㉔
		<b>266</b> 마틴 Martin 91min/㉔

**등급 Rates**  
 © 전체 관람가 General ㉔ 12세 이상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㉔ 15세 이상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㉔ 18세 이상 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㉔ 청소년 관람 불가 Under 19 not admitted

[ \* ] '비밀의 가족' 상영(237)은 영어자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The Mysterious Family' screening (237) dose not provide English subtitles.  
 \* '똥개'는 무료로 상영됩니다.  
 Free admission for 'Mutt Boy' screening.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아무 물이나 말고 풀무원 샘물만 마셔요  
 물도 풀무원이면 믿을수 있대요

깨끗한 화강암반수는 기본  
 550가지 검사로 철저하게  
 대한민국 국민은  
 풀무원을 믿습니다

바른먹거리  
**풀무원 샘물**  
 by Nature

20 SINCE 1998  
Twenty CGV\*



CGV  
CULTUREPLEX